

생보사 M&A 큰 장 선다... KDB·동양·ABL 매각설

동양-ABL생명 대주주 中안방보험 인사 이탈 지속... 교체 가능성 커져 KDB생명, 연말까지 매각 추진키로



왼쪽부터 KDB생명, 동양생명, ABL생명 사옥 전경. /각사

생명보험업계에 M&A(인수합병)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KDB생명, 동양생명, ABL생명 등의 매각설이 돌고 있다. 매각설에 단골로 등장하는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매각 가능성이 또 다시 제기된 것은 대주주인 중국 안방보험의 인사 이탈이 계속됨에 따라 대주주 교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KDB생명도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이 연내 매각을 추진키로 한 데다 최근 990억원의 후순위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하면서 매각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내 보험사 M&A 시장의 단골 매물 후보로 떠오르던 이들 생보사의 매각 가능성이 구체화됨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비은행 부문 강화에 나선 국내 금융지주사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진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 정부의 위탁 관리를 받고 있는 안방보험의 위탁 기간이 내년 2월 만료되면서 연내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매각할 것이라 전망이 제기됐다.

안방보험은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대주주다. 지난 2015년 동양생명을 계열사로 편입했고 2016년에는 ABL생명(옛 알리안츠생명)을 인수했다.

과거에도 매각설이 불거졌으나 ABL생명 한국법인인 독자생존으로 가닥을 잡으며 독립법인보험판매대리점(GA) 자회사를 출범시키고 일부 지역본부와 지점 등을 폐쇄시키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선 바 있다.

그럼에도 매각설이 다시금 흘러나오고 있는 것은 안방보험계 인사 이탈이 심화되고 있어서다.

야오파펑(Yao Da Feng) 동양생명 이사회 의장은 지난달 24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다. 야오파펑 의장의 임기는 2021년 3월까지로 임기를 1년 9개월이나 남겨둔 상태에서 사임한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야오파펑 의장은 안방보험 실세 중 한명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쟁커(Zhang Ke) 동양생명 CFO(최고재무책임자) 부사장이 돌연 사임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안방보험의 또 다른 자회사인 ABL생명의 로이구오(Roy Guo) CFO 부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는 우샤오후이(吳小暉) 전 안방그룹 회장의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우샤오후이 전 회장은 경제사범으로 기소돼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2016년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안방보험의 경영권을 잡았다. 안방보험은 2020년 2월까지 중국 정부에 의한 위탁경영 체제로 유지된다.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위탁경영이

끝나기 전에 대주주가 교체됨과 동시에 동양생명과 ABL생명도 매각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졌다.

현재 중국 정부는 안방보험의 모든 해외자산에 대한 분석에 나섰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한국 자회사인 동양생명과 ABL생명 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양생명은 매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주주 리스크가 커진 만큼 매각설도 구체화되는 모양새다.

또 다른 매물로 나와 있는 KDB생명의 연내 매각 성공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KDB생명은 세 차례 매물로 나왔으나 인수자가 없어 매각이 무산됐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최근 “연말까지 KDB생명의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일단 KDB생명은 시장에서의 매물 가치를 높이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21일 KDB생명은 990억원의 후순위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하는 등 자본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실제로 KDB생명은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KDB생명의 지난해 순이익 64억원으로 지급여력(RBC)비율도 215.03%를 달성했다.

인수 기업으로는 우리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비은행 부문 강화에 나선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 4월 동양자산운용과 ABL글로벌자산운용의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등 비은행 부문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015년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의 성공적인 M&A를 이룬 KB금융도 생보사 인수에 높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M&A 시장에 나와 있는 보험사들이 매력적인 매물이 아니어서 단기간 내에 매각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권 밖에서 M&A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맞지만 과거에도 거론돼 왔던 매물이라 매력이 떨어진다”며 “당장 금융사들이 실제로 매각에 나설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빗길 사고위험 1.2배 높아... 치사율 3.1배”

현대해상 '장마철 교통사고 특성분석' 강수량 35mm이상일 때 41.7배 더 위험

비 내리는 날의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비가 내리지 않은 날에 비해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 내리는 날 야간(20시~5시)의 교통사고 위험도는 평소 야간 대비 1.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해상이 1일 발표한 '장마철 교통사고 특성분석'에 따르면 우천시 빗길 미끄럼 사고는 비가 오지 않을 때보다 1.7배, 고속도로에서는 2.4배까지 증가했다. 빗길 미끄럼 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 대비 3.1배, 중상자 발생률은 1.8배 높았다.

김태호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사는 “빗길에서 과속 운전 시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수막현상이 발생해 미끄럼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여름철(6~8월) 우천시 사고 증가율 비교(당사DB)〉 (단위: 건, 시간, %)

구분	사고건수(A)	관측 총 시간(B)	사고율(C)	비교(D)
강수 有	54,770	303,446	18.0	1.21
강수 無	173,076	1,162,811	14.9	
합계	227,846	1,466,257	-	-

*사고건수(A): 사고 발생건수. 관측 총 시간(B): 671개 관측지점X24시간/일X92일=1,481,568 시간. 관측지 없을 경우 일부 차이 발생. 사고율(C): 시간 당 사고빈도=사고건수(A)/관측 총 시간(B)X100. 비교(D): 우천시 사고증가율 비교=강수 有/강수 無 /자료=현대해상

그러면서 “빗길 운전 시에는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이고 차간거리리는 평소 대비 1.5배 이상 유지한다”며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또 “장마철에는 타이어 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마모된 경우에는 미리 교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면 노면과의 마찰력이 높아져 수막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소는 2012년부터 2018년까

지 7년 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차량 침수 사고를 분석한 결과 차량 침수사고의 80.3%가 시간당 35mm 이상일 때 발생했다. 강수량 35mm 이상일 때의 침수사고 위험도는 그 이하일 때보다 41.7배가 높았다.

차량 침수사고는 서울시내에서 전반적으로 지대가 낮은 강남, 서초구에서 46.0%가 발생했다.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간대는 퇴근 직후(20~22시)에 15.3%, 출근 직전(6~8시)에 12.5%로 나타났다. /김희주 기자

장병내일적금, '자대'서 가입해도 금리우대

군장병들의 목돈마련을 위해 출시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이 10개월 만에 가입자 2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군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장병들의 최소가입기간도 15개월로 단축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지난해 8월 출시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 수가 20만 607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기준 가입계좌수는 총 28만 3026개로 가입 금액은 533억 1100만원이다. 1인당 평균 가입계좌수는 1.37개로 월평균 가입 금액은 25만 8000원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 5% 이상의 고금리와 비교해 혜택으로 전역시 목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병사들에게 인기가 많아 가입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기간을 기존 18개월에서 15개월로 조정했다. 군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최소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병사들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훈련소에서 가입하지 않고 자대배치 뒤 가입하더라도 5% 이상의 금리혜택은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아쉽게도 소급적용은 불가능해 지난달 가입한 인원은 18개월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해야만 5% 금리 혜택이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

우리금융, 베트남서 인공지능 신용평가... “대출 본격화”

우리금융그룹은 베트남에서 인공지능 신용평가 모델을 도입했으며, 이를 모바일뱅킹 신용대출과 신용카드 발급 등 리테일 영업에 활용한다고 1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베트남 국가 신용정보센터(CIC)의 신용정보를 인공지능 머신러닝(Machine Learning)로 기술로 분석하고, 이를 통신사 이용내역 등 신용정보를 대체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신

용평가에 반영하는 모델을 구축했다.

우리은행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신용평가 모델 도입으로 현지 대기업 임직원 위주로 취급하던 신용대출을 일반 고객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으며, 신용평가의 자동화와 정확도 향상으로 영업점 뿐만 아니라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신용대출, 신용카드 업무를 빠르게 취급할 수 있게 됐다.

베트남의 인구는 약 1억명으로 30~40대가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한다. 우리은행은 청년층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높은 베트남에서 모바일뱅킹 등을 활용한 소매금융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번 신용평가 모델을 비대면 중금리 대출은 물론 휴대폰 유통사나 자동차 판매사 등과의 제휴를 통해 할부금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홍민영 기자 hong93@

코리안리 스위스법인, S&P 신용등급 'A'

코리안리는 지난 6월 출범한 스위스 현지법인(Korean Re Switzerland A G)이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로부터 'A'(Stable) 등급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S&P는 지난달 28일 코리안리 스위스 현지법인이 코리안리의 핵심 자회사로 코리안리의 유럽 재보험 사업 확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며 A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이라고 발표했다.

S&P는 “모그룹 코리안리의 우수한 영업환경 및 리스크 관리 능력에 힘입

어 유럽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것으로 보인다”며 “본사의 해외수재 확장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스위스법인의 A 등급 획득이 현지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는 스위스 현지법인으로서 신용등급이 우량계약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코리안리의 해외수재 비중은 전체 매출의 24.7%가량으로 국내 금융사 중 최고 수준이다. /김희주 기자